

잡지문화에 새 바람 일으키는 출판사들

문학계간지에 사회과학전문지 속속 창간... '상업성' 조화가 과제

금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잡지창간 붐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민주화와 언론자유화의 열기에 힘입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잡지 창간리시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잡지의 백화제방시대'를 예견케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출판으로 꾸준한 역량을 다져온 출판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문학지의 계간지시대 열려

정기간행물의 신규등록이 보다 자유로와졌음을 알리는 첫 신호는 문학권에서 들려왔다. 70년대 문학이론의 양대 지주였으며 폐간 조치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문학의 실질적인 代父 역할을 해온 「창작과 비평」(창작과비평사)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가 각각 복간·창간되었고, 기동성과 유격성을 자랑하며 80년대 초·중반 무크지의 선두주자 위치에 있던 「실천문학」(실천문학사)이 복간되었다. 아울러 올봄에 「밀알」에서 「불교문학」이, 新亞에서 「文學과 意識」이 창간되는 등 계간지 중심의 문학풍토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성격의 문학지가 현안사에서 발간한 재수록 전문지 「오늘의 소설」. 30대의 젊은 평론가들이 6개월을 단위로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 중 문제작·우수작을 선정, 재수록하는 이 잡지는 작품의 양적 확대를 질적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이밖에 일조각에서 간행하는 역사전문지 「韓國史市民講座」와 계몽사에서 금년 5월 창간한 「흙도피아」도 관심을 끄는 잡지들. 국사

학계의 원로 李基白교수(한림대)가 책임편집을 맡고 있는 「한국사시민강좌」는 작년 하반기 무크지로 출발했으나 올해부터 반년간지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치고 '역사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흙도피아」는 아동도서 전문출판사답게 기성 여성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 가정과 육아에 중점을 두는 교양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새로운 성격의 사회과학誌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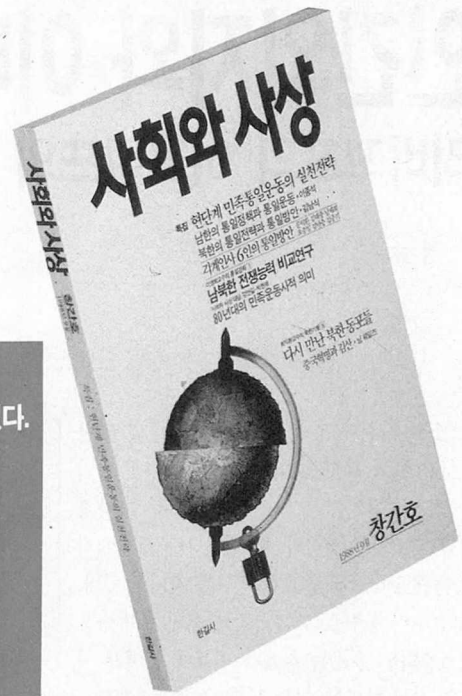
이처럼 금년 상반기에 창간된 잡지들이 비교적 문학쪽에 치우친 반면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사회과학 잡지들이 상당수 나올 전망이다.

한길사에서 9월호로 첫선을 보인 「사회와 사상」은 '학문과 사상의 대중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시사월간지. 특집 「민족통일운동의 실천 전략」을 비롯, 문익환·김대중씨 등 각계인사 6명의 통일방안,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이영희), 「다시 만난 북한동포들」(최익환), 「중국혁명과 김산」(李恢成과 닐 웨일즈의 대담) 등 알맹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희·강만길·박현채·임현영씨 등이 편집위원으로, 소장학자 4명이 기획위원으로 참여, 내용·주제·서술방식 모두에서 신선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발간 즉시 초판이 매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길사의 「사회와 사상」이 비교적 시사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면 '까치'와 '나남'에서 준비중인 잡지는 보다 학술적인 면에 무게중심을 둘 예정으로 있다.

까치가 준비하고 있는 계간지 「경제와 사

잡지등특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출판사의 잡지창간이 잇따르고 있다. 금년 상반기엔 폐간되었던 문학계간지들이 복간되어 문학판도를 변형시켰는가 하면, 하반기엔 최근에 선보인 「사회와 사상」을 비롯, 사회과학 전문지가 상당수 창간될 예정으로 있다.



회」는 제목 자체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모두 포괄해서 다루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다. 최장집(고대·정치학), 김수행(경제학), 임영일(경남대·사회학), 김대환씨(인하대·경제학)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순수 이론전문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10월 초순 겨울호를 창간호로 낼 계획인데, 구성에 있어서 백화점식 나열을 지양하고 200페이지 남짓한 산뜻한 모습으로 선을 보이리라고.

나남의 「사회비평」은 반년간지로서 역시 10월초순에 창간호가 나올 예정. 편집위원으로 오생근(서울대·불문학), 임현진(서울대·사회학), 이성원(서울대·영문학), 김민환씨(고려대 국문학)가 참여하고 있으며 좌담회 「한국사회,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박현채·최일남·한완상), 특집 「한국사회문화현상」이 창간호에 나갈 주요목차이다.

이 두 출판사 모두 경제적 전망보다는 필진 확보와 출판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잡지에 뛰어들어 든 형편이다. 까치의 朴鍾萬사장은 "다른 데도 유사한 기획이 많아서 잡지의 차별화가 쉽지 않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

이라고 밝혔고, 나남의 趙相浩사장은 창간호를 내보고 반년간지에서 계간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잡지를 준비중인 출판사는 청하와 전예원. 두 출판사 모두 문학계간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청하는 시전문지 「현대시세계」와 문학이론지 「현대비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 출판상황을 눈여겨 볼 때 시전문지도 충분히 상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청하의 입장. 전예원에서 준비중인 잡지는 「여성문학」으로 여성필자들에게 지면을 대폭 개방할 방침으로 있다. 이 두 출판사 모두 11월중 창간호를 낼 예정이다.

출판계의 영역확대와 잡지의 수준향상이라는 면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출판사의 잡지발간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종합지나 여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떨어지는 문학지·사회과학지가 어떻게 판매경쟁 및 광고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남진우 기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
값 3,300 원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見)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 호
☎ 739-2520, 738-7709



돌아오는 여행길은 공허할 뿐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앨버트 크라스너 / 이준호 옮김

저마다 여행을 떠나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공허할 뿐입니다. 무릇 모든 여행은 나에게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모든것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오늘 떠나는 여행
늦지 않습니다!